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지역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¹

김용식² · 강기호³ · 배준규³ · 김종근³

Rare and Endangered Plants of Naesōrak in Sōraksan National Park¹

Yong-Shik Kim², Ki-Ho Kang³, Jun-Kyu Bae³, Jong-Keun Kim³

요 약

1997년 5월부터 8월까지 9개 조사경로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과(1종), 주목과(1종), 측백나무과(1종 1변종), 백합과(5종 1변종), 쥐방울덩굴과(2종), 미나라야재비과(4종), 매자나무과(1종), 범의귀과(2종), 장미과(1종), 제비꽃과(2종), 두릅나무과(1종), 산형과(1종), 진달래과(3종), 물푸레나무과(2종 1변종), 가지과(1종), 현삼과(1종), 마타리과(1종), 초롱꽃과(1종), 국화과(1종) 등 19과 32종 3변종으로 총 35종류였다. 등산로 주변에서 확인된 이 식물종들은 보행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식·약용 등 인위적인 훼손의 우려가 많아 종 및 서식지 수준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특히 설악눈주목, 노랑만병초, 월굴, 산마늘, 한계령풀은 개체수가 적고 생육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서식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분포

ABSTRACT

The rare and endangered plants in Naesōrak area were investigated for four months during May to August in 1997,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35 taxa which is classified as 19 families, 32 species, and 3 varieties. At the level of families, 19 families such as Pinaceae(1 species), Taxaceae(1 species), Cupressaceae(1 species and 1 variety), Liliaceae(5 species and 1 variety), Aristolochiaceae(2 species), Ranunculaceae(4 species), Berberidaceae(1 species), Saxifragaceae(2 species), Rosaceae(1 species), Violaceae(2 species), Araliaceae(1 species), Umbelliferae(1 species), Ericaceae(3 species), Oleaceae(2 species and 1 variety), Solanaceae(1 species), Scrophulariaceae(1 species), Valerianaceae(1 species), Campanulaceae(1 species), and Compositae(1 species) were recorded. The most of the habitats of the species was easily found along the major mountain trails, and a kind of destructions of these plants by human

1 접수 12월 15일 Received on Dec. 15, 1997

2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Yeungnam Univ., Kyongsan, 712-749, Korea

3 영남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 Kyongsan, 712-749, Korea

interference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llegal collections for food and medicine are occurred. Those species of *Taxus caespitosa*, *Rhododendron aureum*, *Vaccinium bracteatum*, *Allium victoralis* var. *platyphyllum* and *Leontice microryncha* has a few individuals in habitats and also shows the unfavorable growing state, so the intensive and continuous habitat management of the habitats were inevitably demanded.

KEY WORDS : SÖRAKSAN NATIONAL PARK, NAESÖRAK, RARE AND ENDANGERED PLANTS, DISTRIBUTION

서 론

희귀식물(rare plants)이란 지리적인 분포에 있어서 어떤 제한된 지역에만 생육하여 그 가치가 높은 경우를 말하고, 멸종위기 식물(endangered plants)이란 가까운 장래에 특정지역의 분포에 있어서 인간의 남획이나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는 식물 또는 종을 의미한다(임업연구원, 1996).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기준에 관한 보고(이석우, 1996; 김선희, 1995; 김용식, 1994)와 이를 선정하여 보고한 문헌(임업연구원, 1996; 환경부, 1994; 이영노, 1990; 한국식물학회, 1983) 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학자들의 주관에 의한 것이거나 기존의 문헌을 인용한 경우가 많다(김용식, 1997). 현재까지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보고된 종은 약 900종류로서 우리 나라 전체 식물의 1/5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분류학상의 문제와 자생지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간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에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선정을 위해 국내 식물 분류학자 및 전문가 4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217종류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을 선정하였다. 이 보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보고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선정된 것보다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악산의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에 대해 이창복(1980)은 설악산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을 13종류로 소개하고 이의 분포와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창복과 유종덕(1984)은 1967년 조사 자료와 1980년 한국의 희귀 및 멸종 동식물에 근거하여 56종류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내설악 지역에 분포하는 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종을 조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조사시기 및 방법

1. 조사시기

설악산 국립공원 내설악 지역의 조사는 5월 25일, 6월 21~22일, 6월 29~30일, 7월 3~4일, 8월 15~16일 총 12일간 9개 경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구역별 경로는 Figure 1과 같다.

2. 조사방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보고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기록 중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산림청·임업연구원(1996)에 근거하였다. 각 구역별 답사에서는 1/25,000 지형도와 디지털 고도계(Alti Plus D-2)를 이용하여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출현하는 고도를 10m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위치와 분포상황, 그리고 위협요인 및 보호대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설악산국립공원 내설악에서 출현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본 조사에서 모두 38종류(Taxa)로 파악되었다. 본 지역에서 조사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주요한 분포특성 및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눈잣나무 *Pinus pumila* Regel(소나무과)

북방인자로서 설악산이 분포 남한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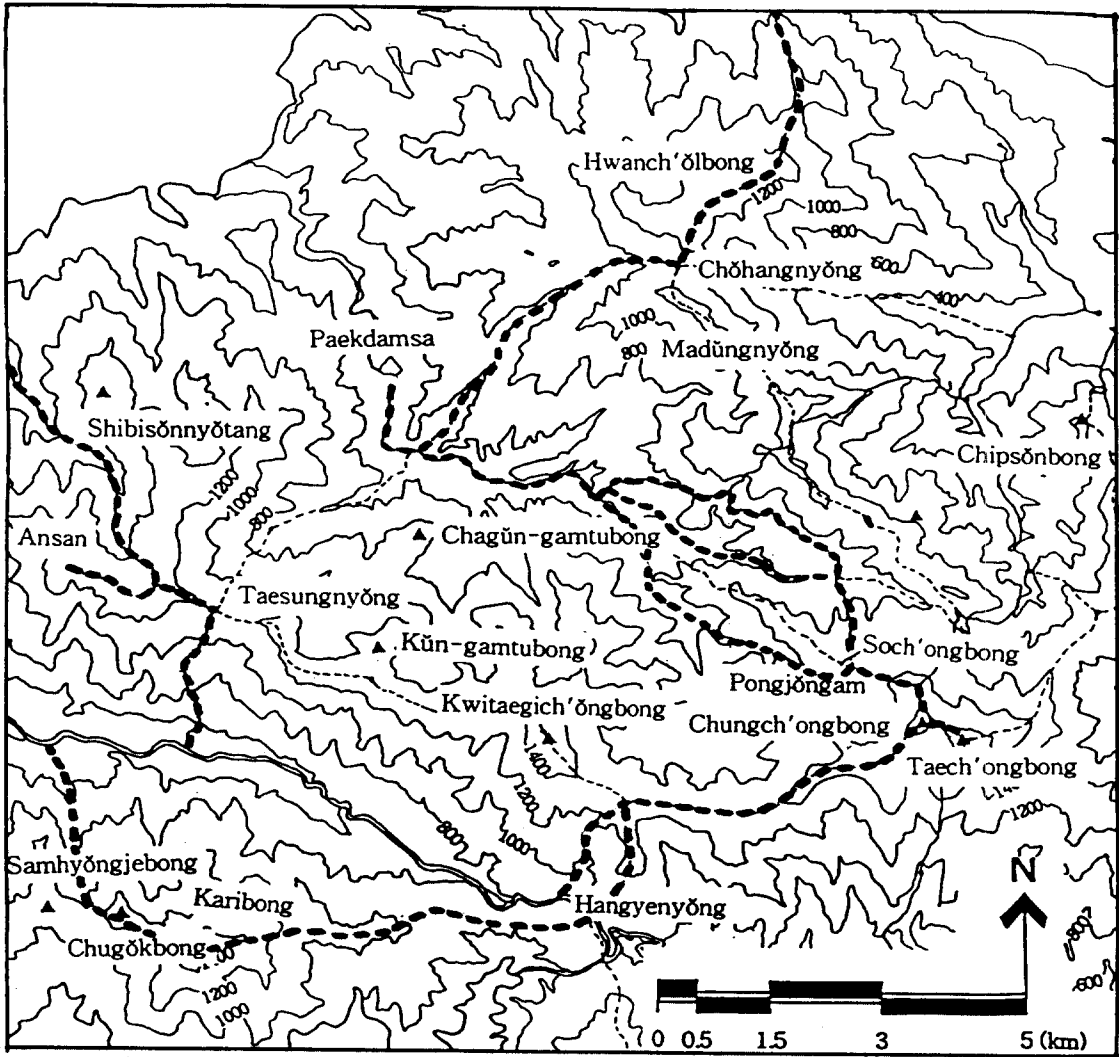


Figure 1. Location map of survey routes in Soraksan National Park

끝청에서부터 대청봉사이에 대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분비나무, 눈쭈백, 털진달래, 넓은잎대명이, 설악눈주목 등과 혼생한다. 비교적 생육 상태가 양호하나 등산로와 인접한 지역은 등산객의 답압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다.

2. 설악눈주목 *Taxus caespitosa* Nakai (주목과)

중청봉 일대에 눈잣나무, 눈쭈백,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꽃개회나무, 당단풍 등과 같이 자라며 개체수가 적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수고 성장이 이루

어지지 않고, 개화 및 결실도 되지 않는 등 생육상태가 불량하였다. 또한 대부분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등산객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려된다.

3.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측백나무과)

제주, 경북, 강원도에 분포하지만, 고산식물로서 개체수가 적다. 한계령과 끝청 중간의 해발 1,330m 지점에서 약 5m×7m 면적에 10개체가 생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접지역의 주요 식생으로는

분비나무, 잣나무, 거제수나무, 털진달래, 붉은병꽃, 정향나무, 눈썹백, 참조팝, 산앵도나무, 산거울 등이 나타났다. 등산로와는 1m 거리에 있으며, 털진달래, 눈썹백 등에 의해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

4. 눈썹백(짚방나무) *Thuja koiensis* Nakai (측백나무과)

우리 나라 특산식물로서, 태백산까지 내려오는 북방인자이다. 백담사 계곡에서는 57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해발 700m 이상에는 집단으로 서식한다. 십이선녀탕 계곡에서는 해발 880m, 한계령에는 해발 1,380m, 가야동 계곡 900m 부근에서부터 많이 출현하였다. 분포 면적이 넓고 개체수가 많아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등산로 주변 개체는 인위적 간섭으로 훼손되거나 고사하고 있다.

5. 산마늘 *Allium victorialis* var. *plathphyllum* Makino(백합과)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등 내륙 고산지대와 울릉도에 분포하며, 최근 약용 또는 식용가치가 높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식물이다.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300m 복사면에서 3개체가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나물로 채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6. 두메부추 *Allium senescens* L.(백합과)

울릉도와 고산지대에 드물게 자라는 북방인자로서, 대청봉 정상 부근 해발 1,700m에서 10m×10m 면적에 약 100개체가 확인되었다. 인접 식생으로는 바람꽃, 범꼬리, 금강초롱꽃, 만주송이풀, 산오이풀 등 초본만이 출현하였다. 인위적인 피해는 거의 없지만, 토양의 노출과 심한 바람의 영향으로 생육상태는 불량하였다.

7.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백합과)

북방인자로서,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080m에서 3개체를 확인하였다. 인접식생으로는 만주고로쇠, 정향나무, 송이풀, 대사초, 고본, 바디나물, 금강초롱, 산구절초, 참나물 등이 나타났다. 등산로와는 5m 정도 떨어져 있어 인위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술나리 *Lilium cernum* Kom.(백합과)

북방계 식물이나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개체수가 적고 관상가치가 뛰어나 채취에 의한 개체수의 감소가 우려되는 식물이다.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030m, 1,280~1,300m에서 10개체, 그리고 한계령에서 가리봉 방향의 해발 920m~930m, 1,310m에서 14개체가 확인되었다. 모두 등산로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어 등산객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식물은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범정보호식물로 지정되었다.

9. 진부애기나리(금강애기나리) *Disporum ovale* Ohwi(백합과)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비교적 분포역이 넓고 개체수도 많은 편이다. 가야동 계곡 해발 950m,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030m, 1,230m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위협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보호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0. 연령초 *Trilium kamschaticum* Pall. (백합과)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에 분포하지만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다. 십이선녀탕 계곡 해발 970m, 길골에서 황청봉 방향의 해발 950m, 미시령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980m, 그리고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340m에서 출현하였으며, 주로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잎과 꽃이 크고 특이하여 관상가치가 높아 원예용으로도 채취가 우려되는 식물이다.

11. 등취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과)

주로 북부지방에 분포하며 비교적 드물게 출현한다. 백담사 주변의 해발 470m, 520m, 580m, 590m, 영시암에서 오세암 방향의 해발 730m, 십이선녀탕 계곡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가야동의 해발 820m, 길골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550m 지점의 식생이 비교적 안정된 곳에서 흉고지경 5cm 되는 개체가 교목의 수간을 감고 수관부로 뻗으며 자라고 있다. 미시령에서 황청봉 방향의 해발 1,020m, 가리봉 1,206m에서 각각 출현하였다. 주로 등산로 주위나 식생이 안정되지 않은 곳에 나

타난다. 대부분 치수들이므로 등산객의 답압에 의한 훼손이 우려된다.

12. 개족도리 *Asarum maculatum* Nakai (쥐방울덩굴과)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설악에 이어 내설악에도 분포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백담사 계곡의 해발 460~540m 구간에서 약 460개체가 자생하고 있으며, 십이선녀탕 계곡에서도 해발 380~670m의 구간에서 84개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길골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650m에서도 군락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등산로 주위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생육이 왕성하고 피해의 흔적이 없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 홀아비바람꽃 *Anemone koraiensis* Nakai(미나리아재비과)

강원도 이북에서 자생하며, 분포역이 좁은 식물이다. 길골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900~1,000m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도깨비부채, 피나물, 회리바람꽃, 별깨덩굴, 노루귀, 당개지치 등과 혼생하고 있다.

14. 바람꽃 *Anemone narcissiflora* L. (미나리아재비과)

북방계식물로서 설악산 지역이 분포의 남한계가 되며, 해발 1,600m 지점의 중청산장에서 대청봉 일대에 큰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한계령에서 끝칭에 이르는 해발 1,300m에도 몇 개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가리봉의 해발 1,400m, 미시령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800~1,050m에서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분포지가 대부분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훼손이 우려된다.

15.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 (미나리아재비과)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개체수가 적고 약용으로 인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길골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790m에서 2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인위적인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본 식물은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식물로서, 특별한 보호가 요망된다.

16. 백작약 *Paeonia japonica* Miyabe et Takeda(미나리아재비과)

분포역이 매우 좁고, 약재적 가치가 높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종이다. 한계령에서 끝칭으로 이어지는 능선 해발 1,550m의 북사면에서 1개체를 확인하였다. 등산로에서는 5m 거리에 있지만 인위적인 훼손이 우려된다. 본 식물은 1997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식물로 지정되었다.

17. 한계령풀 *Leontice microhyncha* S. Moore(매자나무과)

매자나무과의 1속 1종 식물로서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분포하지만, 주로 설악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생한다. 한계령에서 끝칭으로 이어지는 해발 1,200m 부근의 평탄지에서 10m×10m 면적에 약 20여 개체가 확인되었다. 상층식생은 마가목, 피나무, 거제수나무 등의 낙엽활엽수 혼효림이었고, 평의 바람꽃, 회리바람꽃, 노랑매미꽃 등과 함께 나타난다. 개체수가 적고 분포역이 좁아 1997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식물로 지정되었다.

18. 도깨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A. Gray(범의귀과)

경북, 강원도 및 북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계곡부 수림하에 자란다. 십이선녀탕 계곡의 해발 380m, 백담사 주변의 해발 560m, 한계령에서 가리봉 방향의 해발 940m, 990m에서 수십 개체씩 출현하였으며, 1,200m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에서는 해발 1,230m, 도둑바위골 해발 1,100m, 길골에서 황철봉 방향의 해발 560m, 620m, 660m, 780m, 810m에서 각각 출현하였다. 가야동 900~1,200m에 이르는 구간에 큰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분포역이 넓고 비교적 개체수가 많으므로 특별한 보호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툼바위취 *Saxifraga punctata* L.(범의귀과)

강원도 이북에서 자생하는 북방인자로서, 가야동 계곡 해발 1,100m 계곡부에 1m×2m 면적에서 약 50개체가 확인되었다. 인접 식생으로는 사스레나무, 함박꽃나무, 도깨비부채, 고비, 나래박쥐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등산객이 많지 않아 훼손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붉은인가목 *Rosa marretii* Lév(장미과)

우리 나라에서는 강원도 이북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로서, 백담사 계곡의 해발 540m, 900m, 1,300m와 한계령에서 가리봉 구간의 해발 1,300m, 그리고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230m, 1,300m, 1,370m, 1,400m, 1,430m에서 각각 출현하였다. 등산로에 인접한 개체는 약간의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가시의 영향으로 현재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21. 태백제비꽃 *Viola albida* Palibin(제비꽃과)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많지 않은 식물로서, 백담사 해발 570m와 미시령에서 황철봉 구간 해발 920m에서 몇 개체가 확인되었다. 등산로와 인접한 개체는 담압에 의해 생육상태가 불량하였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개체는 이식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금강제비꽃 *Viola diamantica* Nakai (제비꽃과)

주로 강원도 지방의 해발 700m 이상에서 출현하는 식물로서,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350m와 중청과 대청 구간의 해발 1,650m에서 10m×20m 면적에 약 300개체가 자생하고 있다. 주위 식생으로는 박새, 터리풀, 단풍취, 투구꽃, 풀솜대, 마주송이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개체수가 많아 특별한 보호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려된다.

23. 땃두릅나무 *Oplopanax sieboldianum* Makino(두릅나무과)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지리산과 강원도 이북에 분포하는 식물로서, 약용적인 가치가 높아 훼손압력이 심하다.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350~1,400m에서 10개체, 대청봉 일대에서 5개체, 그리고 가야동 계곡에서 봉정암 구간의 해발 1,100m에서 2개체가 확인되었다. 상층식생은 분비나무, 주목, 잣나무, 마가목, 사스래피나무, 만병초 등 침 활엽수 혼효림이 발달하고, 낙엽층이 잘 쌓이는 곳에 분포한다.

24. 등대시호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산형과)

북방인자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덕유산과 속리산 외에는 강원도 이북지역에 분포한다. 끝청에서 중청 봉일대의 해발 1,640~1,650m 남사면과 북사면에 약 1,000개체 이상이 확인되었고, 한계령에서 끝청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해발 1,530m에도 일부 분포한다. 또한 가야동 계곡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해발 1,190m와 1,220m 지점에서 몇 개체가 출현하였다. 본 식물은 대부분 등산로에 인접해 있으며, 1997년 환경부에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 식물로서 특별한 보호가 요망되는 식물이다.

25.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진달래과)

북방인자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설악산 지역이 분포의 남한계에 해당한다. 중청봉 북사면의 해발 1,600m에서 10여 개체가 확인되었다. 눈썹백, 털진달래, 사스레나무, 마가목, 덩불오리 등과 함께 분포하고 있으며,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인위적 훼손이 우려된다. 본 식물은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 식물로 지정되었다.

26. 만병초 *Rhododendron brachycarpum* D. Don(진달래과)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지리산 외에는 강원도 이북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상록 관목이다. 수렴동 계곡의 해발 58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해발 950m부터 많은 개체들이 분포한다. 십이선녀탕 계곡에서는 해발 880m에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해발 1,040m부터 산생하였다. 가야동 계곡에서는 해발 800m와 1,200m 지점에서, 그리고 한계령에서 가리봉 구간에는 해발 1,190m에 출현하였다.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25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대청봉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비교적 넓은 분포역과 많은 개체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치수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대책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27. 월굴 *Vaccinium bracteatum* Thunb. (진달래과)

키가 20~30cm에 이르는 상록소관목으로서, 우

리 나라에서는 설악산이 남한계에 해당한다. 중청봉 북사면의 해발 1,600m에 수십 개체가 분포하고 있다. 개체수가 적고 분포면적이 3m×3m로서 매우 협소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망되는 식물이다.

28. 만리화 *Forsythia ovata* Nakai (물푸레나무과)

우리 나라에서는 경북과 강원도 및 황해도에서 분포하는 특산식물로서, 백담사 계곡의 해발 490m와 550m, 그리고 가야동 계곡의 해발 800m에서 약 40개체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은 개울가 및 등산로 주위 전석지에서 자라며, 백담사 주변의 해발 490m에서는 등짐과 함께 출현하였다. 외설악(김용식 등, 1997)에 비해 개체수와 분포면적이 적고 개울가나 등산로 주변에 자라고 있어 생육상태가 불량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

29. 꽃개회나무 *Syringa wolfii* Schneid. (물푸레나무과)

우리 나라 특산식물로서 관상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이다.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22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해발 1,500m부터는 많은 개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봉정암에서 소청 구간에서도 해발 1,400m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비교적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양호하므로 특별한 보호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정향나무 *Syringa velutina* var. *kamibayashii* T. Lee (물푸레나무과)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식물로서, 관상적 가치가 뛰어난 식물이다. 백담사 계곡의 480m, 560m와 가야동 계곡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해발 1,300m,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300m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비교적 많은 개체와 넓은 분포면적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보호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된다.

31.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 (가지과)

전국의 깊은 수림하에 자라고, 약용으로 인한 채취가 우려되는 식물이다. 백담사 계곡의 해발 500m와 길골에서 황철봉 구간의 해발 800m, 미시령에서 황철봉 구간의 해발 1,040m에서 각 100개체 이상

출현하였다. 그러나 십이선녀탕 계곡에서는 해발 520~710m에 이르는 구간에서 약 450개체가 확인되었다. 비교적 생육상황이 양호하고 개체수가 많은 뿐만 아니라 등산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인위적인 훼손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만주송이풀 *Pedicularis manshurica* Max. (현삼과)

북방인자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설악산 지역이 분포 남한계에 해당된다.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의 해발 1,570m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중청봉과 대청봉에 이르는 구간에서 약 1,000개체 이상이 확인되었다. 비교적 개체수는 많으나, 남한에서는 설악산에만 분포하고 분포지역도 협소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망되는 식물이다.

33.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마타리과)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비교적 분포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 특산식물로서 관상 가치가 뛰어난 식물이다. 백담사 계곡에서는 해발 500m, 가야동 계곡에서는 해발 800m, 한계령에서 끝청 구간에서는 해발 950m부터 해발 1,500m까지 넓게 분포한다. 넓은 분포역과 많은 개체가 자생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Nakai (초롱꽃과)

우리 나라 특산속식물로서 관상 가치가 뛰어나서 특히 인위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식물이다. 가야동 계곡의 해발 900m에 약 50개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한계령에서 가리봉에 이르는 해발 1,240m,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의 해발 1,010m부터 능선을 따라 출현하며, 특히 중청봉에서 대청봉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봉정암에서 수림동 대피소로 이어지는 절벽사면에 몇 개체씩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인위적인 훼손이 우려된다.

35. 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Nakai (국화과)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한라산과 설악산 이북의 고

산지대에 자라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는 식물이다. 대청봉에서 가리봉 방향의 해발 1,310m에서 5개체, 한계령에서 대청봉 방향 해발 1,000m에서 4개체, 1,070m에서 20개체, 1,380m에서 20개체 등 총 49개체가 확인되었다. 주로 능선의 바위틈이나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다.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보호 식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 문헌

- 김선희(1995) 설악산 고산지역의 회귀식물 보전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및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7쪽.
- 김용식(1997) 우리나라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현황 및 보호대책.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확정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79~99쪽.
- 김용식(1994) 우리나라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 평가기준 선정의 필요성. 응용생태연구 8(1): 1-10.
- 김용식, 김선희, 강기호(1997)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의 멸종위기 식물. 환경생태학회지 10(2): 205-210.
- 김용식, 김태욱(1990) 한국산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보존과 식물원 및 수목원의 역할.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연구보고 10: 33-47.
- 김용식, 이유미, 전승훈, 전정일, 김선희(1995) 우리나라의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을 위한 복원계획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연구보고 15: 43-66.
- 김태욱, 전승훈(1992)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한 고산식물의 식물상과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연구보고 12: 1-12.
- 백순달(1982) 설악산 대청봉의 식생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쪽.
- 이석우(1996)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보전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및 적용. 자연보존 93: 39-47.
- 이영로(1990) 한국의 회귀 및 위기 동식물 실태조사연구.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10: 171-209.
- 이창복(1980)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서울. 990쪽.
- 이창복, 유종덕(1984) 설악산의 특산식물 및 회귀식물 설악산 학술조사보고서. 춘천. 169~191쪽.
- 이창복(1980) 설악산 지역의 회귀종 및 멸종위기식물.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연구보고 3: 197-201.
- 임양재, 백순달(1985)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의 식생. 중앙대학교 출판사. 199쪽.
- 임업연구원(1996)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 -보존지침 및 대상식물-. 도서출판 생명의 나무. 140쪽.
- 한국식물학회(1983) 한국의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에 관한 워크숍. 49쪽.
- 환경처(1994) 특정 야생동식물 화보집. 210쪽.